

1 찬양과 기도

·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

· 비판하지 말라

1 "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. 2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당할 것이다.

3 어째서 너는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? 4 네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'네 눈에 있는 티를 빼 주겠다'라고 할 수 있느냐?

5 이 위선자야!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. 그런 후에야 네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.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.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.

·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

7 구하라.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. 찾으라.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. 문을 두드리라.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. 8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.

9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?

10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?

11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?

12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.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.

3 묵상하기

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은 너무 쉽게 발견하고 판단하는 반면,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일에는 둔감합니다.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단점은 그냥 보이지만, 자신의 단점은 깨달아야 알 수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(3절).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이것이 나를 늘 겸손하게 하고,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합니다.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삶의 모든 순간,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고, 찾고, 두드리기 바랍니다.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, 즉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(눅 11:13). 성령충만함만이 쉽게 비판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던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.

4 적용하기

우리는 누군가를 마녀사냥하듯 쉽게 단정해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. 상대를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, 인터넷상에 재미삼아 남기곤 하던 글들이 고스란히 나를 향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?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잣대를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?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.

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(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)

- ① 상대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'사이다' 같은 모습을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? 만약 그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어떨까요?
- ② 잠깐만 방심해도 내 생각, 내 성격대로 하려는 마음을 성령님이 만지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?

6 기도하기

-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
- ②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해주세요.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-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.

1 큐티하기 전 기도

·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?

7 구하라.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. 찾으라.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. 문을 두드리라.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. 8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.

9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?

10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?

11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?

12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.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.

· 궁금 사전

*대접:예의를 갖추어 대하는것

*예언서: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구약 성경의 일부

· 말씀 씨앗

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세요.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.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. 그래서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채워 주세요.

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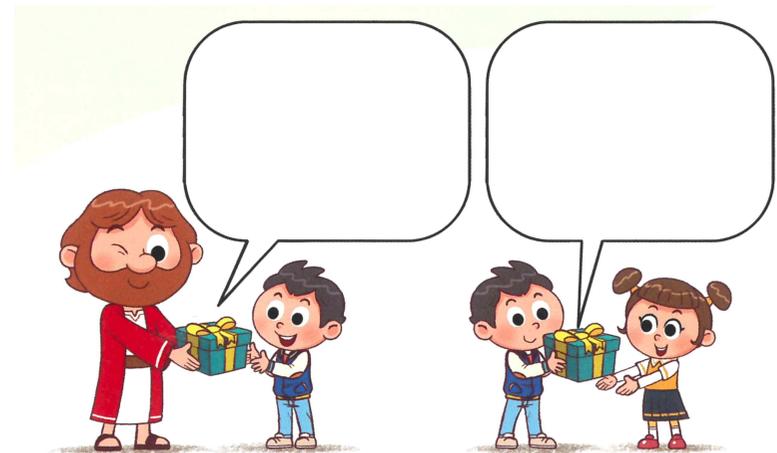
3 말씀 새싹

서로 어울리는 말씀을 찾아 선을 그어 연결해 보세요.

찾으라 (7절)	남을 대접하라
두드리라 (7절)	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
하늘에 계신 아버지 (11절)	열릴 것이다
대접받고 싶은 대로 (12절)	찾을 것이다

5 말씀 열매

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? 빈 말풍선에 각각 쓰세요.



·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

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요.

6 기도하기

하나님,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 주며 살겠어요.